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 **버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 **주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 05~08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요일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 공연접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8

AUGUST 2014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August

2014년 8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8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August,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4년 8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우리민속 한미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9월 공연 일정 미리보기 토요일상설공연

일자	공연제목	공연자	장르
6일	수운당(受籙堂) 최순희의 춤걸	최순희	무용
13일	심무(心舞)	원유선	무용
20일	풍류 동행	송영숙	기악
27일	수당 정명숙의 춤	정명숙	무용

일요일연민속무대

일자	공연제목	공연자	장르
7일	FROMKOREA의 젊은 난장	프롬코리아	연희
14일	세계를 향해 본때를 보인다! 태권 공연 '본때'	사)결련택견협회	무예
21일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	전통연희연구소	연희
28일	오천년 전의 가와지범씨와 고양송포 호미걸이	고양송포호미걸이	연희



제855회

수&단 무용단의 '동행'

'Companion' by Su & Dan Dance Company

08. 02.



제856회

라이브인 소울 '바람에 오르다'

Live in Soul 'Ride the Wind'

08. 09.



제857회

본향(本郷)...마음이 머물다 가는 춤

Native Land... A dance where a heart rests

08. 16.



제858회

김희옥의 '원점을 찾아서'

'In Search of the Starting Point' Dance by Kim Huiok

08. 23.



제859회

삼현육각보존회 연주회 '삼현육각'

Samhyeon yukgak Preservation Society Concert 'Samhyeon yukgak'

08. 30.

*공연일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공연료는 무료입니다. Free Admission

우리민속 08 AUGUST 2014

한미당



수&단 무용단의 '동행'

'Companion' by Su & Dan Dance Company

2014. 08. 02.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수&단 무용단이 눈으로 맛을 느끼고 귀로 흥을 돋우는 우리 전통 춤의 향연과 현대 춤과 전통 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창작 춤을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이다.

본 무대는 태평무를 시작으로 정·중·동의 맛을 보여주는 살풀이춤, 원향지무, 그리고 타악의 흥겨움과 신명을 느끼게 해주는 장고춤과 소고춤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한국 전통춤을 선보인다. 또한 현대 춤과 전통 춤의 융합을 시도한 '삼도천'이라는 창작 작품을 선보이는데 '삼도천'은 불교에서 사람이 죽어 저승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고 하는 큰 강으로,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3가지 다른 여물이 정해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전통 춤의 단아하고 깊은 맛과 불교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새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Su & Dan Dance Company unfolds both Korean traditional dance numbers amusing eyes and ears of the audience and creative dance pieces combining modern dance elements and classical ones on a stage.

Tapyeongmu, a dance to wish great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country lifts the curtain. A shaman ceremonial dance, Salpurichum which presents the elegance of Jeong-Jung-Dong (literally, movement on silence); Wonhyangjimu originated from a Korean court dance to wish for and celebrate victory; Janggochum and Sogochum in which the audience feel the merriment and wonder of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music will be staged in sequence. What follows is 'Samdocheon' a creative dance piece integrating classical dance movements with modern dance techniques. Samdocheon is a river the dead must cross on the way to the afterlife in Korean Buddhist tradition. It is believed that three different rapids or directions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ir past deeds.

Through this performance, the audience will appreciate the elegance and genuine depth of Korean traditional dance moves as well as the novelty in creative dance works that reinterpret the Buddhistic world view in a modern way.



공연순서 PROGRAM

- 01 태평무 Taepyeongmu
- 02 살풀이춤 Salpurichum
- 03 삼도천 Samdocheon
- 04 원향지무 Wonhyangjimu
- 05 장고춤 Janggochum
- 06 소고춤 Sogochum



대표 배은정 (수&단무용단 대표)

사회 김미현

연출 김효은

출연 김미현, 한선미, 강은지, 김문옥, 문경민, 이진주, 이하나, 표혜인

라이브인 소울 '바람에 오르다'

Live in Soul 'Ride the Wind'

2014. 08. 09.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21세기와 어울리는 새로운 국악을 소울만의 색깔로 이야기 하는 라이브인 소울 '바람에 오르다'의 제목으로 공연을 준비하였다. 본 공연은 전통 국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창작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첫 무대는 드럼과 대고의 사물 리듬이 어우러지고 기타의 다이내믹한 연주 그리고 소리(구음)의 풍성함을 더한 프롤로그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서 경기도당굿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소울 방식의 기원굿과 사물놀이 리듬에 기타 악기의 조화로 만든 라이브 인 비트, 관객과 소리를 주고받으며 어우러지는 소울 비나리가 이어진다. 마지막 공연은 아리랑 본래의 음률을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음악인 재즈(Jazz)와 락(Rock)으로 편곡하여 우리 국악의 새로운 면을 보여줄 것이다.

A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band 'Live in Soul' which plays gugak with its distinctive style to fit for 21st century will hit the stage. Creative song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music from a variety of different genres will be presented under the title of 'Ride the Wind'.

In prologue, performers create rhythms using a drum and a large bass drum along with dynamic guitar play and the richness of gueum (literally, oral sound). What follows are 'Giwongut' which is created using Gyeonggidodanggut (a shamanic ritual of Gyeonggi province) as a motif; 'Live in Beat' a song based on Samulnori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 rhythms with instrumental accompaniment; 'Soul Binari' in which performers and the audience sing together and create harmony. In the finale, a Korean folk song 'Arirang' arranged in jazz and rock that two most popular genres of music will present new dimensions in Korean traditional music.

공연순서 PROGRAM

- 01 프롤로그 Prologue
- 02 시즌 오브 라이프 Season of Life
- 03 소울 비나리 Soul Binari
- 04 라이브 인 비트 Live in Beat
- 05 소울아리랑 Soul Arirang



대표 강준석 (국악밴드 소울 대표)

연출 손은경

출연 강준석, 송요한, 이상현, 손은경, 임수아, 윤기순, 염두용

본향(本郷)... 마음이 머물다가는 춤

Native Land... A dance where a heart rests

2014. 08. 16.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 춤을 바탕으로 전통 작품과 궁중무용, 민속무용 등 여섯 개의 작품이 마치 조각보를 그려내듯 그 조화와 도드라짐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양손에 북채를 들고 북을 두드리며 추는 춤으로 신명과 함께 우리춤의 서민적이고도 연회적인 멋을 느끼게 하는 진도북춤으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서 발 디딤이 다양하고 동작 하나하나가 정갈하고 절제됨이 특징인 태평무, 칼을 들고 추는 원형 그대로의 궁중검무, 여인들이 나들이 가기 전에 화경(거울)을 들여다보며 설레어 하는 분위기를 창작화한 바람의 화경, 여인의 우아한 자태를 부채를 이용하여 격조 있는 춤사위로 표현한 태평산조, 마지막으로 경쾌함이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농악반주에 맞춰 흥과 신명이 느껴지는 소고춤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In this program, 6 different dance works including traditional, court and folk pieces will be presented harmoniously yet maintaining their distinct features like a patchwork quilt.

The show begins with Jindo bukchum in which dancers holding drumsticks in both hands show merriment and theatrical aspects of Korean dance. Then, Taepyeongmu characterized by diverse steps as well as delicate and dignified motions will be performed. What follows are Gungjung geommu, a traditional sword dance practiced in the court of Korea and a creative dance work entitled 'The Decorative Mirror of the Wind' of which dancers convey a light-hearted mood that young ladies prepare themselves for an outing while looking into the decorative mirror. In Taepyeong sanjo, performers using folding fans portray an elegant female figure with sophisticated movements. The program will conclude with Sogochum, one of the most popular solo performances accompanied by exhilarating percussion ensemble called Nongak (literally, farmer's music).

공연순서 PROGRAM

- 01 진도북춤 Jindo Bukchum
- 02 태평무 Taepyeongmu
- 03 궁중검무 Gungjung Geommu
- 04 바람의 화경 The Decorative Mirror of the Wind
- 05 태평산조 Taepyeong Sanjo
- 06 소고춤 Sogochum



대표 서지민(드림무용단 회장)

출연 최순희, 윤순자, 강영미, 서지민, 정경희, 이춘화, 김영미

김희옥의 '원점을 찾아서'

'In Search of the Starting Point' Dance by Kim Huiok

2014. 08. 23.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원점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전통 춤을 정립한 한성준 선생님을 시작으로 강선영 선생님, 그리고 이명자 선생님께서 이어진 우리 전통 춤의 원점을 찾아 떠나는 춤 이야기이다. 다양하고 뛰어난 전통 춤의 진수를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인의 얼이 담겨진 신명나는 춤들로 구성되었다. 첫 무대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화려한 발놀림이 일품인 '태평무'로 막을 연다. 이어서 한국인의 활발한 기상과 강한 기질을 보여주는 '검무', 엇가락을 타는 춤사위가 특징인 '호적 시나위', 국내외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부채로 우아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부채춤', 춤추는 사람의 감흥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는 '즉흥무', 그리고 여인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장고춤'을 공연한다. 마지막 공연은 관객과 공연자가 다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고 흥겨운 '사물놀이'로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Korean traditional dance numbers will be presented under the title of 'In Search of the Starting Point'. This performance will be a journey to find the origin of Korean traditional dance that began with the master, Han Sungjun acknowledged for establishing classical Korean dance and passed down to Kang Seonyong and Lee Myungja. The program consists of various dance numbers that present both the essence and merriment of Korean traditional dance. A dance wishing a great peace for country, 'Taepyeongmu', which features elaborate foot movements, opens the stage. 'Geommu', a sword dance expressing vigor and strong spirit of Korean people; 'Hojeok Sinawi' which is characterized by its unconventional dance moves with hojeok, a Korean double reed wind instrument accompaniment; and 'Buchaeuchum' a fan dance well-known for its elegant beauty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mpromptu Dance' which shows individual dancers' talents and spiritual excitement; and 'Janggochum' which shows off the feminine beauty will be followed. Lastly, 'Samulnori' will bring performers and audiences together.

공연순서 PROGRAM

- 01 태평무 Taepyeongmu
- 02 검무 Geommu
- 03 호적 시나위 Hojeok Sinawi
- 04 부채춤 Buchaeuchum
- 05 즉흥무 Impromptu Dance
- 06 장고춤 Janggochum
- 07 사물놀이 Samulnori



대표 김희옥(한국전통무용연구소 대표)

연출 이명자

출연 김희옥, 강설자, 고정자, 고리혜, 최광자, 임은자, 하실영, 강미강, 문추옥, 권관자, 김광수

삼현육각보존회 연주회 '삼현육각'

Samhyeon yukgak Preservation Society Concert 'Samhyeon yukgak'

2014. 08. 30.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 예능 보유자인 최경만, 김무경, 이철주 외 보존회 회원들이 함께 무대를 준비하였다. 공연 프로그램으로 삼현육각보존회의 대영산과 경기 시나위 이외에 예능보유자의 개개인의 독주 공연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김무경의 아쟁산조와 이철주의 대금산조는 곡목처럼 어려운 류를 특정해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락과 선대 선생님들에게 물려받은 가락들을 엮은 독창적인 곡들이다. 또한 최경만의 호적풍류는 기존 남도제 태평소 시나위와는 다른 경기제 가락으로 시원시원한 맛을 낸다. 이번 공연은 고(故) 지영희 선생님이 생전에 남겨놓은 주옥같은 곡들로 경기남부 지역의 민속음악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Holders of Samhyeon yukgak (traditional ensemble of three wind instruments and six percussion instruments)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44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hoi Gyeongman, Kim Mugyeong and Lee Choelju along with other members of Samhyeon yukgak preservation society will present a concert. In this program, the audience can fully appreciate solo performances of individual holders in addition to Daeyoungsan (instrumental music composed to accompany dance forms) and Gyeonggi Sinawi (instrumental ensemble in Gyeonggi province) played by members of preservation society. Also, Players perform Ajeang (a large Korean bowed zither having seven strings) and Daegeum (a large bamboo transverse flute) sanjo pieces that were developed by Kim Mugyeong and Lee Choelju respectively by adding performer's personalized style to the tunes inherited from their predecessors. Differing from Taepyeongso (a big peace instrument, also called hojeok) Sinawi of Namdo (Southwestern part of Korea) style, Hojeok pungryu in the school of Choi Gyeongman will be played in Gyeonggi (Midwestern part) style so that the audience can enjoy brisk and light-hearted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is concert has been arranged to promot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he folk music in sou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on the basis of beautiful songs by the late master, Ji Younghui.

공연순서 PROGRAM

- 01 대영산 Daeyoungsan
- 02 김무길 아쟁산조 Ajaeng Sanjo by Kim Mugil
- 03 최경만 호적풍류 Hojeok Pungryu by Choi Gyeongman
- 04 이철주 대금산조 Daegeum Sanjo by Lee Cheolju
- 05 경기 시나위 Gyeonggi Sinawi



대표 최경만(삼현육각보존회 회장)

연출 최경만

출연 최경만, 김무경, 이철주, 김효도, 윤순병, 김성엽